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25~30일 경남 일원서 개최

# '다함께 굳세게' ... 전북, 필승 다짐

도내 493명 선수단 출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는 16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2층 대강당에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 장애인체육회 정호영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종목 경기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전북자치도선수단은 31개 개회 종목 중 27개 종목, 493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선수단에 따르면 주목할 선수들은 지난 8월말 개최된 2024 파리패럴림픽 대회에 출전했던 전북도 소속 국가대표 사이클 이도연, 육상 전진재 선수의 대회 3관왕과 탁구 백영복, 태권도 이동호, 조정 최선웅, 양궁 김경화, 론볼 김승희, 펜싱 류은환, 이진솔, 보치



16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선수단 결단식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등 참석자들이 필승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 김연하 선수의 입상, 뜰나무 선수로 대년간 육성해온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의 4년 연속 3관왕과 신기록 수립이 기대된다. 특히 배드민턴 김상현, 사격 최문규, 육상 박인화, 휠체어펜싱 최두홍, 보치 탁구 이상훈 선수 등 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신인 선수들의 대회 첫 출전과 올해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체전에 첫 출전하는 슬

런 18명, 쇼다운 4명의 선수들의 성과도 주목되고 있다. 구기종목에서는 남자좌식배구, 뇌성 축구, 지적농구, 휠체어러비, 개인종목으로는 사이클, 양궁, 태권도, 육상, 론볼, 보치아, 휠체어펜싱, 탁구, 파크골프의 활약이 기대된다. 도 장애인체육회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무더웠던 날씨 등 험겨운 훈련을 이겨내며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선수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지도자와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과 한마음으로 함께 뛰며 응원하겠다"면서 "경기 때까지 부상없이 컨디션 유지 잘하시고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는 선수단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간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시스

##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 두번째 쾌거

오정빈, 전국체전 동메달... 이한빛 은메달에 이어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팀 오정빈(여자자유형 53kg) 선수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자유형 62kg급 이한빛 선수에 이어 두 번째 쾌거다. 오정빈 선수는 국내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휩쓸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에 이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까지 획득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 약 1개월 전부터 전지훈련을 실시한 여자레슬링팀은 이번 전국체전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기량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정환기 감독은 "전북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뿌듯하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 복싱 오연지, 체전 여자 라이트급 12회 연속 우승

한국 여자 복싱 간판 오연지(울산광역시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에서 1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연지는 16일 경남 김해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복싱 여자 일반부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진혜정(충주시청)을 5-0으로 꺾었다. 전날 벌어진 준결승에서 2024 파리올림픽 여자 54kg급 동메달리스트인 임애지(화순군청)를 5-0으로 물리친 오연지는 결승에서도 가볍게 승리를 따냈다.

2011년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라이트



급에서 처음 우승한 오연지는 코로나 19 여파로 일반부 경기가 열리지 않은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12회 연속 우승을 일궜다. /뉴시스

## 높이뛰기 이상혁, 체전 통산 9번째 우승

2m21 넘어... 대회 5연패 위업

한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 이상혁(용인시청)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이상혁은 16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육상 높이뛰기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 2m21을 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m15로 은메달을 가져간 김주는(고양시청)를 가볍게 제쳤다. 2m05를 작성한 김두용(포항시청)은 동메달을 가져갔다.

이로써 이상혁은 개인 통산 9번째 전국체전 우승과 함께 대회 5연패 위업을 일궜다.

2024 파리 올림픽 아쉬움도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상혁은 지난 8월 폐막한 파리 올



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2m27를 기록해 7위에 머물렀다. 올림픽을 마친 뒤 지난달 출전한 2024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리에서는 2m25를 날아올라 동메달을 수확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여자배구 "모든 팀 경쟁력 올라와 승부 예측 어렵다"

19일 현대건설-흥국생명 개막전으로 시즌 시작...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현대건설"

이번 주말 새 시즌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자배구 7개 구단이 가장 위협적인 상대로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을 꼽았다. 그러면서 모든 팀의 기량이 평준화했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여자 배구 7개 구단 감독 및 선수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개막을 앞둔 출사표를 던졌다.

여자 배구는 오는 1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개막전을 통해 새 시즌에 돌입한다.

이날 미디어데이엔 지난 시즌 우승 팀 현대건설의 강성현 감독을 포



함해 7개 구단 감독들이 자리에 참석, 새 시즌 목표를 밝혔다.

이날 가장 많은 감독들이 내세운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유니폼을 바꿔 개막을 앞둔 출사표를 던졌다. 팀이 큰 변화를 겪었다.

프라이비전트(FA) 자격을 얻어 GS칼텍스에서 한국도로공사로 이적한 강소희와, 흥국생명에서 IBK기업은행으로 옮긴 이주아, 정관장에서

IBK기업은행으로 이동한 이소영 등이 눈길을 끈다. 보상선수로 IBK기업은행에서 정관장으로 등지를 옮긴 표승주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그러면서도 7개 구단 감독은 전체적으로 모든 팀의 경쟁력이 올라온 만큼 어떤 팀이 챔피언에 올라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희진 감독은 "폐퍼저축은행과 함께 챔피언에 올라가고 싶다"며 "장소연 감독이 유일한 여자 감독으로서 배구관에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전했다.

이에 장소연 감독은 "정관장과 페퍼가 활이어서 강점이 큰 팀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미들블로커 출신 감독으로서 챔피언에서 한번 불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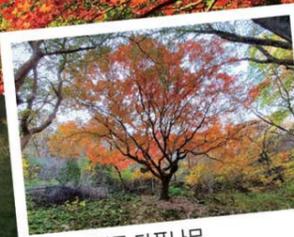
싶다"고 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들의 답변을 들은 이형택 GS칼텍스 감독은 "저도 미들블로커 출신인데 언급하지 않았다. 챔피언에 올라간다면 두 팀은 아니었음 좋겠다"고 웃으며 "저희가 약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비시즌 동안 선수들이 훈련에 잘 따라와줬다. 상대 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방심한다면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 플레이오프에 가야 한다며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며 "새 선수들도 합류했고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합한 맞춰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내장산 우화정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내장산 단풍터널

## 단풍명소 내장산

빨강, 주황, 노랑...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단풍잎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랑하는 이와 울긋불긋 단풍 바라보며  
내장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이 가을날...

